

삼위일체적 평화통일신학의 적용

- 북한이탈주민들과 한국 교회·사회와의 상호적 이해와 포용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들

백충현 (장신대, 조직신학 교수)

I. 서론

수도권에 있는 OO교회는 북한이탈주민들로 구성된 교회인데, 이 교회가 아파트 단지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출석하는 남한 성도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10여년의 교회역사에서 초창기에는 남한 성도가 많았으나 북한이탈주민들이 잘 나오지 아니하였고, 현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많아졌으나 남한 성도는 거의 사라졌다.¹⁾

수도권에 있는 OO교회는 남한성도로 구성된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하여 북한선교부를 두고 사역하고 있다. 그런데, 이 교회로 찾아오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정작 교구와 구역 속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²⁾

남한에 온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리고 해외에서의 꿈을 찾아서 다시 해외로 나가는 탈남 현상이 많다. 그 중에서 이국경·홍경화 부부는 2009년 가까스로 미국에 갔지만 2년 남짓 만에 남편 이 아내를 칼로 찌르고 남편 자신은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였다.³⁾

이와 같은 점들은 앞으로 이루어질 남북한의 통일이 과연 실질적인 통일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많은 의구심을 갖게 한다.

2015년은 광복 70주년이며 동시에 분단 70주년이다. 남북한의 분열은 지난 반세기 이상 동안 크나큰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남북한의 평화통일의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의 실현은 갈수록 멀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정치적 및 제도적인 면에서의 형식적 통일이 갈수록 멀어지는 것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설사 그러한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및 문화적인 면에서의 실질적인 통일은 더더욱 요원한 것처럼 보인다. 유엔인구기금(UNFPA)의 자료인 '2014 세계인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전세계의 총인구는

1) 필자가 이 교회를 방문하여 관찰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인 담임목회자와의 대화를 통하여 알게 된 점이다.
2) 북한선교부를 두고 사역하고 있는 남한 여러 교회들이 보이는 비슷한 모습이다.
3) 류종훈, 『탈북 그 후, 어떤 코리안 - 남한을 떠나 해외 난민으로 살아가는 탈북자들의 삶을 취재한 다큐멘터리』(서울: 성안북스, 2014).

72억 4400만 명이고, 여기에서 남한의 총인구는 4950만 명, 북한의 총인구는 2500만 명이다.⁴⁾ 앞으로 이루어질 통일한국의 총인구는 7500만 명 전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통일이 된다면, 과연 7500만 명이 실질적인 통일의 모습 속에서 살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에 답하기 위한 시금석은 남한으로 온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내에서 어떻게 정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즉,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 사회 및 교회와 상호적으로 어떤 관계성과 어떤 공동체성을 맺고 있는지가, 장차 있을 남북한의 통일에서 남한사람들과 북한사람들이 어떤 관계성과 어떤 공동체성을 맺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귀중한 시금석이다. 통일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월까지 남한으로 온 북한이탈주민들의 인원은 총 2만8133명이다.⁶⁾ 이들이 남한 내에서 어떻게 잘 정착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앞으로의 통일한국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능해볼 수 있는 귀중한 잣대이다. 그러나 최근에 주위에서 목격하고 전해 듣는 여러 현상들은 부정적인 답변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동기로 시작된 본 연구는 남북한의 평화통일이 정치적 및 제도적인 면에서의 형식적인 통일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회적 및 문화적인 면에서의 실질적인 통일이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남한으로 온 북한이탈주민들이 지니고 있는 어려움들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 남한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차별과 무시에서 의해서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남한사람들의 이러한 태도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성에 근거한 배타성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을 제시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에 관하여 이루어진 여러 선행연구들을 참조할 것이다. 특히 남북한 나재단이 2014년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및 사회조사의 결과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할 것이다. 그런 후에 본 연구는 인간의 자기중심성에 근거한 배타성을 극복하기 위한 신학적인 비전으로 현대 삼위일체신학이 제시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성과 개방성과 상호내주성에 근거하여, 남한사람들과 북한이탈주민들과의 관계성/공동체성 및 개방성/포용성의 원리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원리들이 한국 사회 및 한국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몇몇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북한이탈주민들의 현황과 경험

1. 북한이탈주민들의 현황

북한이탈주민들의 입국인원에 관한 통일부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6월 조사시점까지의 북한이탈주민들 총인원은 2만8133명이다.⁷⁾

4) 인구보건협회의 2014년 11월 18일 보도자료(<http://www.ppfk.or.kr/>).
5) 본 논문에서는 휴전협정체결 이후 남한으로 온 사람들을 통칭하는 법적인 용어로 "북한이탈주민"을 사용한다. 월남민, 피난민, 귀순자, 귀순용사, 탈북자, 귀순북한동포, 탈북인, 탈북민, 탈북난민, 탈북이주민, 북한이주민, 자유이주민, 자유북한인, 새터민 등등의 용어들이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현재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공식적으로 사용한다. 안교성, 『평화통일신학 구성의 전제로서의 후기공산주의 사회의 변화에 대한 연구』 『평화통일신학 - 신학적 근거의 모색(제1회 평화통일신학포럼)』(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남북한평화신학연구소, 2015), 201-202, 각주14.
6) 통일부의 알림마당 자료(<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440>).
7) 통일부의 알림마당 자료(<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440>).

구분	'98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6 (잠정)	합계
남(명)	831	565	510	474	626	424	515	573	608	662	591	795	404	369	305	106	8,358
여(명)	116	478	632	811	1,272	960	1,513	1,981	2,195	2,252	1,811	1,911	1,098	1,145	1,092	508	19,755
합계(명)	947	1,043	1,142	1,285	1,898	1,384	2,028	2,554	2,803	2,914	2,402	2,706	1,502	1,514	1,396	614	28,133
여성비율	12%	46%	55%	63%	67%	69%	75%	78%	78%	77%	75%	70%	72%	76%	78%	83%	70%

북한이탈주민들은 1990년대 이후 급증하여 2001년부터는 매년 1천 명 이상이 입국하고 있으며, 특히 2006년부터 2011년까지는 2천 명 이상이 입국하였다. 2012년부터는 매년 1천 명 이상이 들어오고 있다. 2008년에는 2803명, 2009년에는 2914명이 입국하여 최고의 정점을 기록하였다.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누적수로는 2007년에 1만 명을 넘어섰으며, 그 후로 3년만인 2010년에는 2만 명을 넘어서었다. 여전히 매년 1천5백여 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2015년 6월까지의 북한이탈주민들 총인원은 2만8133명이다.

그런데 미래나눔재단의 윤희철 사무총장의 분석에 따르면, 여기에서의 총인원은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별세한 자들을 제외해야 하고, 또한 남한으로 왔지만 해외로 나간 탈남 북한이탈주민들을 제외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들 중에서 현재까지 별세한 자들은 대략 1천 명 정도이며, 해외로 나간 탈남 북한이탈주민들은 대략 4천 명 정도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2015년 6월까지의 북한이탈주민들 총인원 2만8133명 중에서 대략 5천 명을 제외한 2만3133명이 현재 남한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통일부 자료에서 제시하는 북한이탈주민들 총인원수는 남북하나재단의 2014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의 수치와는 거의 일치한다. 이 실태조사는 “2014년 12월 현재 남한에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들의 총인원을 약 2만7500명”⁸⁾이라고 보고 있다. 통일부 자료의 총인원 2만8133명 중에서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입국한 614명을 빼면 2만7519명이기에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래나눔재단의 윤희철 사무총장의 분석을 고려하면, 실제로 남한에 거주하는 이는 2만3133명이기에 수치상으로는 큰 차이가 난다. 다만, 남북하나재단의 2014년 실태조사는 약 2만7500여 명 중에서 “23,141명을 조사모집단으로 선정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히고 있기에, 2만3141명이라는 수치는 미래나눔재단 윤희철 사무총장의 지적을 고려한 2만3133명이라는 수치와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에, 현재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총인원은 2만3~4천 명이라고 거의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 남북하나재단의 2014년 실태조사는 2만3141명을 조사모집단으로 선정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중에서 최종 1만2777명이 조사에 응하였기에, 조사완료율 55.2%를 기록한다. 결과적으로 남북하나재단의 2014년 12월의 실태조사는 조사시점에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2만3141명 중에서 1만2777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적으로, 이들이 남한 내에서 거주하는 지역은 경기 26.5%, 서울 22.0%, 인천 9.2%로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전체 중 57.7%임을 알 수 있다.⁹⁾

8) 남북하나재단,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서울: 남북하나재단, 2014), 5. 이 자료는 비매품으로 출판되지 않았으나 다음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nkrf.re.kr/nkrf/archive/archive_01/kolas/kolasList.do?kind=DAS2

9) 남북하나재단,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123.



즉, 북한이탈주민들 2만3141명 중에서 경기도에 6132명, 서울에 5091명, 인천에 2129명이 거주하여, 수도권에는 총 1만352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북한이탈주민들의 경험

남북하나재단의 2014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남한생활의 만족도에 관하여 매우만족 17.7%, 만족 49.9%, 보통 28.6%, 불만족 2.8%, 매우불만족 0.6%, 모름/무응답 0.4%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매우만족 및 만족이 67.6%, 불만족 및 매우불만족이 3.4%, 보통 28.6%이다. 그런데, 이러한 수치를 근거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으며, 이러한 점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람들과 좋은 관계성 및 공동체성을 형성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단편적이고 일면적인 해석이며 성급한 결론이다. 그러기에 더욱 심층적인 분석과 해석이 요청된다.

먼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생활에 대한 만족도의 이유들을 다음의 조사결과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¹⁰⁾



복수응답을 허용한 이 조사에 따르면, 남한생활에 대한 만족 이유들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 47.4%, “북한 생활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겨서” 42.3%, “내가 일한만큼의 소득을 얻을 수 있어서” 40.7%,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아서” 27.1%,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서” 23.8%, “안정된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어서” 5.0%, “이웃, 학교, 회사 등 사회로

10) 남북하나재단,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161.

부터 인정받아서” 3.3%이다. 그런데, 이러한 만족들을 남한생활 자체에 대한 만족으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해석이다. 왜냐하면 만족의 이유들의 대부분은 남한생활이 북한생활에 비하여 갖는 비교우위적인 특성들에서 오는 만족들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생활에서의 만족도의 이유들보다는 불만족의 이유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불만족의 이유들에 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¹¹⁾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54.7%,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각종 편견 및 차별 때문에” 41.9%, “나의 능력과 내가 하고 싶은 일 사이의 격차가 심해서” 28.4%, “남한사회문화에 적응이 어려워져서” 27%, “가족들과의 갈등 때문에” 8.1%, 기타 12.1%, 모름/무응답 1.4% 이다. 이러한 불만족의 이유들은 남한생활 자체에서 나오는 이유들이다. 남한생활 내에서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 직장 선택에서의 불만, 사회문화에의 부적응은 모두 남한생활 자체 안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54.7%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각종 편견 및 차별 때문에’ 41.9%



[그림 III-3-5] 남한생활에 대한 불만족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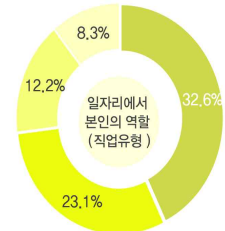
위의 불만족 이유 중에서 첫 번째 요인인 경제적인 어려움 자체 안에 사회적인 편견 및 차별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014년 북한이탈주민들의 고용률 53.1%, 실업률 6.2%인데, 이러한 수치는 남한전체의 고용률 60.8%보다 낮고, 남한전체의 실업률 3.2%보다 높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내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월평균 임금 및 평균 근로시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북한이탈주민들의 월평균소득은 147.1만원이지만 남한전체의 223.1만원에 비하여 76만원이나 낮다. 그리고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에는 47.0시간인데, 남한전체의 44.1시간에 비하여 주당 2.9시간 더 많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직업유형을 살펴보면, 단순노무 32.6%, 서비스업 23.1%, 기능원 및 관련종사자 12.2%, 사무직 8.3%로서 북한이탈주민들이 현재의 직업에서 전문성을 축적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²⁾

3. 차별, 무시, 배타

2014년의 실태조사에서, “지난 1년 동안 북한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북한이탈주민들이 25.3%나 되었다. 그러한 경험이 없다는 북한이탈주민들

11) 남북하나재단,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164.

12) 남북하나재단,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6.



이 73.6%이지만 이러한 수치의 해석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25.3%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차별과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점이다. 차별과 무시의 구체적인 이유들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¹³⁾ “말투, 생활방식, 태도 등 문화적 소통방식이 다르다는 점에서” 68.6%, “남한사람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존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42.6%, “남한사람에 비해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서” 19.2%, “남한사회에서 경제적 수준이 낮은 계층이어서” 13.4%, “언론에서 북한체제/이탈주민들에 대한 부정적 보도의 영향으로” 11%, “북한의 호전적인 도발의 영향으로” 5.5% 등등으로 나타났다.

‘말투, 생활방식, 태도 등 문화적 소통방식이 다르다는 점에서’ 68.6% > ‘남한사람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존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42.6%



[그림 III-3-8] 차별/무시당한 이유

북한이탈주민들 중에서 25.3%가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지만, 그렇다고 나머지 북한이탈주민들이 모두 행복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이러한 점을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남북하나재단은 2014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외에도 2014년 북한이탈주민 사회조사를 동시에 실시하였는데,¹⁴⁾ 여기에서의 조사결과는 상당히 의미 있는 점들을 제공하여 준다. 2014년 북한이탈주민 사회조사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 민감도, 슬픔 및 절망감의 정도, 죽고 싶다는 생각의 정도를 조사하였는데, 상당히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첫째, 지난 2주일 동안 일상생활에서 전반적으로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꼈는지에 대해서 “매우 많이 느꼈다” 19.9%, “느낀 편이다” 51.4%, “느끼지 않는 편이다” 22.6%, “전혀 느끼지 않았다” 5.8%, “모름/무응답” 0.2%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응답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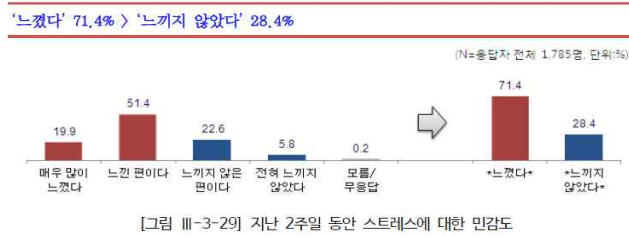
13) 남북하나재단,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170.

14) 남북하나재단, 『2014 북한이탈주민 사회조사』(서울: 남북하나재단, 2014). 이 자료도 마찬가지로 비매품으로 출판되지 않았으나 다음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nkrf.re.kr/nkrf/archive/archive_01/kolas/kolasList.do?kind=DAS2

71.4%.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았다는 응답이 28.4%로서,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다.¹⁵⁾ 북한이탈주민들 10명 중에서 7명은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전반적으로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치는 남한전체 중 66.6%가 스트레스를 느끼는 수치보다 5.2%나 높은 것이기에, 북한이탈주민들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슬픔 및 절망감을 느낀 경험과 관련하여 2014년 사회조사는 지난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경험이 없다” 70.3%, “그런 경험이 있다” 29.2%로 나타났다.¹⁶⁾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3명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슬픔과 절망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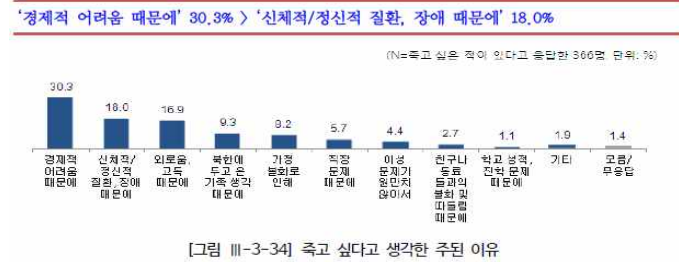
셋째, 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죽고 싶은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없다”는 응답이 78.7%, “있다”는 응답이 20.5%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들 10명 중 2명이 죽고 싶은 생각을 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¹⁷⁾ 이러한 수치는 남한전체의 6.8%만이 죽고 싶은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서, 즉 남한사람들 중에서는 10명 중에 1명도 안

15) 남북하나재단, 『2014 북한이탈주민 사회조사』, 228.
 16) 남북하나재단, 『2014 북한이탈주민 사회조사』, 231.
 17) 남북하나재단, 『2014 북한이탈주민 사회조사』, 233.

되는 사람이 죽고 싶은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는 것에 비해서, 3배 이상의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치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는 남한의 자살률이 지난 11년 동안 OECD 국가 중에서 1위이라는 점을 미루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2000년대에 가파르게 증가하였던 남한의 자살률은 2011년에 인구 10만 명당 31.7명으로 최고점을 기록하였고, 2012년 28.1명, 2013년 28.5명, 2014년 27.3명이다. 이러한 수치는 OECD 평균자살률이 12.1명인 것에 비하여 두 배 이상 높은 것이다.¹⁸⁾ 그리고 이러한 수치는 남한에서 한해 자살하는 사람들이 1만 5천 명에 가까우며 하루 평균 40명에 가깝다는 점을 의미한다. 남한사람들의 자살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는 더욱 더 심각하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들 중에서 죽고 싶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의 구체적인 이유들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경제적 어려움” 30.3%, “신체적/정신적 질환 및 장애” 18%, “외로움 및 고독” 16.9%, “북한에 두고 온 가족 생각” 9.3%, “가정불화” 9.2%, “직장문제” 5.7% 등으로 나타났다.¹⁹⁾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남북하나재단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람들에 비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으며, 죽고 싶다고 생각한 경험도 더 많다는 점에 주목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치유되지 않은 정신건강문제는 남한 정착과정에서의 스트레스가 더해지면서 일상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심각하게 미치고 있다고 분석한다. 아울러, 남북하나재단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포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남한사람들의 인식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한다.²⁰⁾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북한이탈주민들의 탈남 현상은 앞으로 더욱 더 많아 질 것이다. 영국에 망명하였던 북한이탈주민들이 2007년 135명, 2008년 170명이다.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는 제3국이 아닌 이미 남한에서 정착했던 북한이탈주민들이었다. 이들은 위장 망명을 통해서라도 남한을 떠나 해외로 가고자 하였던 것이다. 영국으로 위장 망명한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2등 국민으로 취급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등등의 이유로 탈남을 선택하였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에 관한 연구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18) 통계청 e-나라지표 “자살률”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992#quick_02;
 19) 남북하나재단, 『2014 북한이탈주민 사회조사』, 236.
 20) 남북하나재단, 『2014 북한이탈주민 사회조사』, 260-261.

남한에서 받는 차별이나 편견 등이 남한에서의 적응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밝힌다. 즉, 남한에서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차별, 부적응, 상대적 박탈감, 생활고, 교육 부담 등등이 탈남현상을 일으키고 있음을 보여준다.²¹⁾

유엔난민기구(UHCHR)의 2014년 세계난민현황(Global Trends Forced Displacement) 보고서에 따르면,²²⁾ 탈북 난민자들이 1천 173명, 난민 지위 신청 후 대기하는 자들이 3489명이다. 게다가 유엔 난민기구에 의해 무국적자로 규정된 사람이 204명에 달해, 탈북 난민들과 난민신청자가 합계 약 4866명이다. 그리고 2014년 중반까지의 조사에 따르면, 영국에 정착한 탈북 난민의 수가 630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캐나다 127명, 독일 107명, 러시아 67명, 벨기에 66명, 네덜란드 58명 순이다. 해외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탈북난민들 중에는 남한에서 살다가 해외로 나간 탈남 북한이탈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탈남 북한이탈주민들은 대부분 남안에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차별과 무시와 배타를 경험하기 때문에,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해외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이탈주민들과 남한사람들이 오랜 세월 서로 다른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배경에서 생활해 왔기 때문에, 외적인 생물학적인 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 정서적 심리적인 면에서는 상당한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인하는 차별과 무시와 배타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상호간의 이해와 포용은 최대한으로 증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III. 삼위일체적 평화통일신학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이탈주민들이 겪는 어려움들은 다차원적이고 다면적이고 다층적이다. 특히, 이들의 어려움들은 남한생활 내에서의 차별, 무시, 배타에 대한 경험들로 인하여 더 가중되고 악화된다. 그러기에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생활 내에서 더욱 더 따스한 환영 및 환대, 사회적 포용, 경제적 배려, 문화적 상호이해를 경험할 수 있다면, 자신들의 어려움들을 더 수월하고 더 넉넉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러한 가능성을 모색하고 증진하고자 본 연구는 신학적 비전을 삼위일체신학에서 가져오려 한다. 본 연구는 필자의 선행연구 결과물인 『남북한 평화통일을 위한 삼위일체적 평화통일 신학의 모색』²³⁾에서의 논의들을 더 발전시켜서 삼위일체적 평화통일신학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삼위일체적 평화통일신학의 요청

지난 70년 동안 남북한의 분단지속의 상황에 대처하고 극복하기 위하여 한국교회는 그동안 교회적으로 및 신학적으로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고, 나름대로의 성과를 보여 왔다. 그렇지만, 『남북한 평화통일을 위한 삼위일체적 평화통일 신학의 모색』에서 신학유형론적으로

21) 전명희, “미국으로 간 탈북자들의 정착과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권 4호 (2012), 90-91.

22) 유엔난민기구(UHCHR) 자료. <http://unhcr.org/556725e69.html>

23) 백충현, 『남북한 평화통일을 위한 삼위일체적 평화통일 신학의 모색』(서울: 나눔사, 2012). 이후로 『삼위일체적 평화통일 신학의 모색』으로 표기함.

분석한 바와 같이, 그동안의 한국교회의 교회적 또는 신학적 시도들과 실천들은 신-중심적(Theo-centric) 유형, 그리스도-중심적(Christo-centric) 유형, 성령-중심적(Pneuma-centric)으로 구별된다. 각각의 유형은 나름대로의 장점들도 있지만, 또한 단점들도 있다.²⁴⁾

첫째, 신-중심적 유형은 사회와 역사 속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활동을 제시함으로써 남북한 평화통일이라는 문제를 신학적으로 논의하기에 용이한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활동의 보편성을 강조하면 할수록 남북한 평화통일의 논의가 종종 기독교적 인 정체성을 상실하거나 희미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둘째, 그리스도-중심적 유형은 남북한 평화통일에 관한 신학적인 논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위주로 전개하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유형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화해의 의미를 개인영혼의 구원과 교회내의 성장과 확장에 제한하여 적용하는 협소한 유형이 되어 사회적, 역사적, 우주적 차원들을 상실하는 단점이 있다.

셋째, 성령-중심적 유형도 성령의 사회적, 역사적, 우주적 차원들의 활동보다는 교회내적 활동을 더 많이 강조한다. 그래서 이 유형은 많은 경우에 협소한 그리스도-중심적 유형과 쉽게 결부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성령의 교회내적 더 많이 강조함으로써 교인들을 교회의 활동과 영혼구원을 위한 선교에 참여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교인들로 하여금 사회적, 역사적, 우주적 차원을 보지 못하게 하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남북한 평화통일을 위한 앞으로의 교회적 및 신학적 논의는 그동안 각각의 유형이 지니는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통합적인 틀이 요청되며, 이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삼위일체-중심적(Trinity-centric) 유형이 제시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중심적 유형에 바탕을 둔 삼위일체적 평화통일신학이 요청된다.

2. 현대 삼위일체신학의 르네상스

삼위일체적 평화통일신학의 요청에 대한 응답은 20세기 중후반부터 오늘날까지 새롭게 재발견되고 풍성하게 논의되고 있는 현대 삼위일체신학으로부터 많은 통찰들을 얻을 수 있다.

삼위일체론은 교회사에서 325년의 니케아공의회와 381년의 콘스탄티노플공의회에서 공식화되어 교리적으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삼위일체론이 가리키는 바는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 속에 명시적으로 및 암시적으로 표현되어 온 것이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성령에 대한 신앙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왔으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내적인 구별성에 대한 이해가 암시적으로 반영되어 왔다.

삼위일체론이 교리적으로 공식화된 이후로 교회는 삼위일체론을 믿고 가르치고 고백하여 왔지만, 동시에 도전과 비판과 공격을 받아왔으며, 특히 18세기 및 19세기에는 더 큰 도전과 비판을 받아 신학의 논의에서 사라지는 일식현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20세기 및 21세기에서는 삼위일체론이 일식으로부터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신학의 모든 주제들과 분야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루어지는 삼위일체신학의 르네상스 또는 부

24) 백충현, 『삼위일체적 평화통일 신학의 모색』, 27-82.

흥을 맞이하고 있다. 창조론, 인간론, 기독교론, 구원론, 속죄론, 성령론, 영성론, 교회론, 종말론 등등의 주제들 뿐만 아니라, 목회사역, 예배, 성례, 선교, 기도, 가정생활, 사회, 다문화, 세계 종교 등등의 분야들이 삼위일체신학의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²⁵⁾

새롭게 재발견되어 부흥기를 누리고 있는 현대 삼위일체신학은 칼 바르트와 칼 라너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블라디미르 로스키와 존 지지올라스와 같은 동방정교회 신학자들에 의해서 촉진되었으며, 위르겐 몰트만,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 로버트 젠슨과 같은 신학자들에 의해 한층 발전되었으며, 윌리엄 노만 피터서, 조셉 브라켄, 마저리 휴잇 수하기와 같은 과정신학자들과 캐서린 모리 라쿠나와 같은 여성신학자들, 그리고 해방신학자 레오나르도 보프, 아시아계 미국인 신학자 이정용, 영국의 콜린 건튼, 미국의 다니엘 밀리오리, 크로아티아 출신의 미로슬라브 볼프 등등에 의해서 확대되고 심화되어 왔다.²⁶⁾

3. 삼위일체신학에서의 하나님과 사회

현대 삼위일체신학이 오늘날 제시하는 통찰들과 공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회와의 연관성이다. 19세기 중엽의 영국의 기독교사회주의자인 프레데릭 데니슨 모리스는 1854년에 출판한 자신의 책 『신학에세이』에서 삼위일체는 인간의 삶의 토대이며 인간사회의 토대라고 주장한다.²⁷⁾ 1869년에는 캠브리지대학교에서 사회도덕에 관하여 21회의 강연을 하면서 사회도덕을 위한 신학적 기초를 탐구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모리스는 모든 신학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 위에 토대를 두고자 하는 자신의 신학기획이 삼위일체를 사회도덕의 토대로서 여기는 자신의 입장을 확증한다고 여긴다. 19세기 말의 러시아정교회 신학자인 니콜라스 페도로프는 “삼위일체론은 우리의 사회적 프로그램이다.”라는 명제를 통하여 당대의 사회를 삼위일체적으로 변혁시키기를 원하였다.²⁸⁾

한편으로, 모리스의 비전과 페도로프의 원리는 몰트만의 사회적 삼위일체론과²⁹⁾ 보프의 해방신학적 사회적 삼위일체론³⁰⁾으로 확장되고 심화된다. 보프는 “삼위일체는 우리의 참된 사회적 프로그램이다.”라고 주장한다.³¹⁾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경제적 착취와 정치적 억압과 사회적 불평등이 없는 공동체, 즉 평등과 정의와 사랑이 가득한 사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모리스의 비전과 페도로프의 원리는 건튼과 볼프에 의해서 제

한된다. 건튼은 인간의 철저한 죄성으로 인하여 사회적 삼위일체론을 무제한적으로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여긴다.³²⁾ 그래서 볼프도 그러한 비전과 원리를 무제한적으로 지지하기보다는 약간의 제한을 가한다. 그리고 볼프는 삼위일체의 형상을 사회에 적용하기보다는 교회에 적용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인들의 교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치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은 삼위일체의 형상이 될 수 있다”고 진술한다.³³⁾ 그리고 볼프는 “삼위일체론은 우리의 사회적 비전이다.”라는 명제로 좀 더 완화된 표현을 사용한다.

제한적이든 광범위하게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인간은 사회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다. 인간의 한계성과 연관성과 죄성으로 인하여 인간은 완벽하게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어렵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다.

『남북한 평화통일을 위한 삼위일체적 평화통일 신학의 모색』에서 제안하였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성(Triune Togetherness),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방성(Triune Openness),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호내주성/페리코레시스(Triune Mutual Indwelling/Perichoresis)의 모습들을 지니시는 분이시다.³⁴⁾ 즉,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늘 함께 존재하시며 늘 함께 사역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안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신 밖으로 나아가며 세계에 대하여 개방되어 있는 분이시다. 또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요 17:21)라는 예수님의 기도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상호내주 또는 상호침투하시면서 사랑과 평등의 공동체를 이루신다. 이와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들에 근거하여 삼위일체신학은 인간 존재 및 인간 사회에 대하여 관계성/공동체성 및 개방성/포용성의 원리를 이끌어내고 적용할 수 있다.

4. 삼위일체신학에서의 관계성/공동체성

첫째, 현대 삼위일체신학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성 또는 공동체성 뿐만 아니라, 인간 존재에서와 인간 사회에서의 관계성 및 공동체성에 큰 함의를 가진다. 현대사회의 가장 주요한 특징들 중의 하나이면서 동시에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들 중의 하나는 개인주의(individualism)이다. 이에 대립되는 집단주의(collectivism)도 또한 큰 문제들 중의 하나이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극복하고 진정한 공동체(authentic community)를 형성하기 위하여 관계성(relationality)에 관한 논의들이 학문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 특히, 근대적 주체의 특징으로서의 개인주의는 인간의 자율성과 합리성을 강조하는 장점이 있지만, 인간중심적인 가치관을 견고하게 함으로써 타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배제하며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하는

25) 백충현 지음/옮김,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 - 현대 삼위일체신학에 대한 신학·철학 융합적 분석: 존재론과 인식론을 중심으로』(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21, 45-46. 이후로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로 표기함.

26) 백충현,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 15.

27) Frederick Denison Maurice, *Theological Essays* (London: Macmillan, 1871), 309.

28) 장윤재, “에큐메니컬 운동의 미래에 대한 한 제안,” 박상중목사평전 출판기념회 기념심포지엄(2010년 6월 21일), 16 (<http://www.kncc.or.kr>)

29) 신옥수, “몰트만의 사회적 삼위일체론 - 비판적 대화를 중심으로,” 『장신논단』 제30집 (2007년), 203-230.

30) Leonardo Boff, *Trinity and Society*. 이세형 옮김, 『삼위일체와 사회』(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Leonardo Boff, *Holy Trinity, Perfect Community*. 김영선·김옥주 옮김 『성삼위일체 공동체』(서울: 크리스천해럴드, 2011).

31) 보프, 『삼위일체와 사회』, 16.

32) Colin Gunton, *The Promise of Trinitarian Theology*(2nd edition)(London: T&T Clark, 1997), 73-75.

33) Volf, Miroslav. *After Our Likeness: The Church as the Image of the Trinity*. 황은영 옮김. 『삼위일체와 교회 -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교회에 대한 가톨릭·동방정교회·개신교적 이해를 찾아서』(서울: 새물결플러스, 2012), 196.

34) 백충현, 『삼위일체적 평화통일 신학의 모색』, 151-167. 여기에서 페리코레시스는 그리스어이며, 라틴어로는 키르쿰인세시오(circumincessio) 또는 키르쿰인세시오(circumincessio)로서, 상호내주(mutual indwelling, co-inherence) 또는 상호침투(interpenetration)를 의미한다.

많은 병폐들을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타자를 긍정하고 포용하는 진정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사상적 기초와 토대를 제시하기 위하여, 관계성 및 공동체성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근대적 주체의 개념을 비판하면서, 또한 상호주관적인 관계성의 개념에 남아 있는 실체론적 또는 유아론적 잔재를 더 철저히 제거하면서, 관계성을 더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이들이 있다. 마틴 부버는 근대세계의 특징으로서의 “나와 그것(I-It)”의 관계를 비판하면서 “나와 너(I-Thou)”의 상호인격적 관계를 제안한다.³⁵⁾ 엠마누엘 레비나스는 전체성의 개념을 거부하고, 또한 타자를 위한 책임과 타자를 위한 고통의 개념을 통하여 “타자의 윤리(Ethics of the Other)”를 제안한다.³⁶⁾ 칼빈 슈렉은 “횡단적인 자아(Transversal Self)”라는 개념을 통하여, 인간은 특정한 사회에 의존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나, 그러한 특정한 사회에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에, 다른 차원의 합리성을 구현하고 있는 공동체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보다 다층적으로 구성한다고 주장한다.³⁷⁾ 이러한 논의들을 통하여 우리는 개인주의적인 단일성을 넘어서고 집단주의적인 획일성에 빠지지 않는 지점에서 자아를 구성할 때 진정한 공동체를 형성할 가능성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다.

신학의 영역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현대 삼위일체신학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지울라스는 자신의 책인 『친교로서의 존재』에서 존재(being) 자체가 친교(communion)이며 연합(union)이며 관계(relation)이라는 점을 밝힌다.³⁸⁾ 밀리오리는 우리로 하여금 삼위일체론의 “표면문법(surface grammar)”에 머무르지 말고 “심층문법(depth grammar)”으로 나아가도록 조언한다. 그가 의미하는 삼위일체론의 심층문법에 따르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고(self-giving), 남을 긍정하며(other-affirming), 공동체를 세우는(community-forming) 사랑이다.³⁹⁾ 노조무 미야히라는 일본의 언어적 문화적 배경을 토대로 삼위일체를 “삼간일화(三間一和, Three Betweenness and One Concord)”로 표현하였다.⁴⁰⁾ 이러한 시도들은 위격(Person)을 개별적으로 분리되거나 단절된 존재로 보지 않고, 서로 간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적 존재로 보는 통찰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인간 존재 및 인간 사회는 분리되고 단절된 자아들이 아니라, 이미 관계성과 공동체성 안에 있는 존재이며, 그 안에서 친교와 연합과 일치될 수 있는 존재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성은 이러한 관계성과 공동체성을 부인하고 각자의 개별적이고 독립된 자아를 내세운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제한적이나마 닮아가고자 할 때에, 인간 존재 및 인간 사회는 본연의 관계성과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

5. 삼위일체신학에서의 개방성/포용성

둘째, 현대 삼위일체신학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개방성과 포용성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 존재와 인간 사회에서의 개방성 및 포용성에 대하여 큰 함의를 가진다. 예수님의 세례사건에 대한 칼뱅의 주석이 분석하듯이,⁴¹⁾ 예수님의 세례사건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만 머무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와 세계에 열려 있는 개방성의 사건이며 우리를 받아들이는 포용성의 사건이다. 예수님의 사건에서 드러난 삼위일체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미 거하였던 성령이 예수님의 세례사건에 다시 임하신 까닭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성령의 막대한 권능을 입히도록 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믿는 자들이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들이는지를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다. 성령이 불의 형상이 아니라 “비둘기 같이”(마 3:16) 나타난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상징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죄인들에게까지 열려 있으시며 죄인들까지 받아들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개방성과 포용성을 발견하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갈 때에 두려움이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돕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 3:17)는 소리가 들린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성부의 막대한 사랑을 맛보도록 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믿는 자들이 어떻게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지를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늘로부터 그러한 사랑의 소리를 듣게 함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대담하게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방성과 포용성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또는 집단적인 전제들, 선입견들, 심지어 왜곡된 이데올로기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아가는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짐으로써, 우리의 전제들과 선입견들과 개념들과 왜곡된 이데올로기들이 노출되고 이와 동시에 변화되고 갱신되는 것이다.⁴²⁾ 그럼으로써 동시에 우리는 은혜를 통하여 타자에게 열려 있는 개방성을 가지게 되고, 또한 타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포용성을 가지게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방성과 포용성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볼프는 『배제와 포용』에서 타자를 어떻게 이해하고 긍정하고 받아들이는지에 관하여 논의한다.⁴³⁾ 그러면서 볼프는 십자가에서의 하나님의 자기 내어줌이라는 주제에 담긴 사회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즉,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은 이들을 악에 넘겨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 빨을 내뿜으시고, 속죄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받아들이시며 포용하시고자 자기를 내어주셨음에 주목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포용을 받은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하여야 한다고 볼프는 주장한다.⁴⁴⁾

35) Martin Buber, *I and Thou*. 김천배 옮김. 『나와 너』(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36) Immanuel Levinas, *Otherwise than Being or Beyond Essence*, trans. Alphonso Lingis (Bost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78).

37) Calvin O. Schrag, *The Self after Postmodernit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7). 오승성, 『후기 정초주의와 기독교 신학 -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와 한스 프라이 신학의 후기정초주의적 해석』(서울: 고려글방, 2012)에서 재인용.

38) John D. Zizioulas, *Being as Communion*. 이세형·정애성 옮김. 『친교로서의 존재』(춘천: 삼원서원, 2012).

39) Daniel L. Migliore, *Faith Seeking Understanding: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Theology*(2nd edition). 신옥수·백충현 옮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 기독교 조직신학 개론(전면개정판)』(서울: 새물결플러스, 2012), 136.

40) Nozomu Miyahira, *Towards a Theology of the Concord of God: A Japanese Perspective on the Trinity* (Carlisle: Paternoster Press, 2000).

41) 백충현, 『삼위일체적 평화통일 신학의 모색』, 83-85.

42) 백충현, 『삼위일체적 평화통일 신학의 모색』, 162.

43) Miroslav Volf, *Exclusion and Embrace: A Theological Exploration of Identity, Otherness, and Reconciliation*. 박세혁 옮김. 『배제와 포용』(서울: 한국기독교학술출판부(IVP), 2012).

44) Volf, 『배제와 포용』, 34-35.

그리고 볼프는 『베풀과 용서』에서 선물로서의 은혜와 그것이 사회적 관계들에 미치는 함의들을 고찰하였다.⁴⁵⁾ 삼위일체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베푸시는 분이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히 베푸시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러한 베품을 누리고 그러한 용서를 받은 우리도 또한 남들에게 베풀어야 하고 남들에게 용서하여야 한다.

IV. 관계성/공동체성 및 개방성/포용성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들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성, 개방성, 상호내주성의 모습에 근거한 삼위일체적 평화통일신학은 인간 존재 및 인간 사회에서의 관계성/공동체성 및 개방성/포용성의 원리들을 제시하여 준다. 이러한 원리들은 한국 사회 및 교회에서 남한사람들과 북한이탈주민들과의 상호적 관계성/공동체성 및 개방성/포용성을 어떻게 형성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함의점들을 제공하여 준다.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공동체성은 하나님 또는 신에 대한 이해를 교정하여 준다. 단일신론(monotheism)적 또는 단일군주신론(monarchianism)적인 신관념을 극복하고 관계적 공동체적인 하나님 이해에로 회복시켜 줄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에게는 북한주체사상적 세계관으로부터 벗어나 줄 수 있는 사상적 대안을 제시하여 줄 수 있으며, 남한사람들에게는 수직적 위계질서적인 신관념으로부터 벗어나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공동체적이며 관계적인 하나님 이해를 갖도록 도와준다. 그럼으로써 우리 모두로 하여금 성경의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발견하고자 나아가게 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성, 개방성, 상호내주성의 모습을 깊이 깨달아가도록 한다. 그러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하면서 우리의 인간 존재 및 인간 사회가 관계성/공동체성을 온전히 형성하고 증진시킨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공동체성에 비추어 인간 존재 및 인간 사회의 관계성/공동체성을 증대시킨다.

둘째,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방성/포용성은 남한사람들이든 북한이탈주민들이든 서로에게 자신을 열어서 개방하며 서로를 자신 안으로 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획일적인 일치가 아니라 다름 속에서의 일치로의 전환이 서로에게 있어야 할 것이다. 나와 다르고 우리와 다르다고 여겨지는 타자의 다름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며, 그리고 타자의 다름이 오히려 나의 정체성과 우리의 정체성에 영향을 주어 더 풍성한 변화에로 이끌어갈 것임을 확신하여야 한다.

이러한 함의들은 또한 현실 및 현장 속에서의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초와 토대를 제공하여 준다. 현재 이러한 함의들을 반영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실천사례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미래나눔재단과 한반도평화연구원은 공동으로 “새터민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⁴⁶⁾ 북한이탈주민 대학생들을 매년 10여명 선발하여 대학기간 동안 장학

금을 지원한다. 현재는 약 40여명의 북한이탈주민 대학생들을 지원한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는, 장학금 지급을 조건으로 수혜 학생들에게 의무적인 동원이나 강요를 요구하지 아니한다는 점이다. 그 대신에,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멘토-멘티의 본래의 방식은 북한이탈주민 대학생과 남한 대학생을 친구로 연결하고자 하였다. 물론 이것도 매우 의미 있는 시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단순한 친구관계가 몇 차례의 만남의 관계 이상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였다. 그렇다고 단순히 교회의 신앙 좋은 어르신들을 멘토로 선정하여 연결하는 방식도 피상적이고 일방적인 시혜의 관계가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멘티인 북한이탈주민 대학생의 관심사와 진로와 고민들에 실질적인 도움과 조언을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을 멘토로 선정하여 연결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멘티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꼭 필요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에 자신에게 지속적인 만남에 대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멘토는 자신의 분야에서는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북한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재단측에서 멘토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상담하는 방식을 함께 도입하였다.

이러한 멘토-멘티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멘토들과 멘티들을 상담하고 목회하는 코디네이터를 두는 것이다. 그리고 이 코디네이터는 반드시 북한사역의 경험이 풍부하고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이해의 전문가이어야 한다. 이 코디네이터는 멘티들을 캠퍼스로 찾아가 상담하고 조언해주고, 또한 멘토들의 고충을 듣고 상담하고 조언하여 준다. 그래서 멘토와 멘티 사이에 놓여있는 장벽들과 오해들을 부드럽게 누그러뜨리고 제거해주는 방식으로 활동한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멘토와 멘티 양쪽 모두에게 크게 도움이 됨으로써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다른 기관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둘째, 북한선교사역의 현장 전문가인 하충엽 박사가 제안하는 통이(統異) 공동체의 비전은 현장 경험 및 현실 상황에 매우 적절한 방식이어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여 준다.⁴⁷⁾ 그가 제안하는 통이공동체는 정치적인 구조 또는 제도로서의 공동체가 전혀 아니다. 그가 제안하는 통이공동체는 남북한의 통일어로 나아가는 과정으로서의 공동체를 의미하며, 상호 이해와 포용을 위한 과정으로서의 공동체이다. 이러한 제안의 밑바닥에는 그의 풍부한 현장 경험 및 적절한 현실 판단이 놓여 있다.

하충엽 박사는 분단 70년이 지난 현재 남한사람들과 북한사람들은 이미 이질화된 두 공동체들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 근거들로 3가지를 제시한다. 첫째는 사물 인식에 있어서 남북한의 외형인식이 매우 이질적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면, 북한에서는 꽃이 주체사상을 나타내는 상징들로서 인식된다. 평양시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매화, 해바라기, 진달래, 목련화, 김일성화, 김정일화는 단순히 식물의 꽃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혁명적 요소를 내포하는 상징들로 인식된다.⁴⁸⁾

둘째는 남북한의 언어표현이 매우 이질적이라는 점이다. 북한에서는 “이해”는 다르게 이해한다는 의미이고, “리해”는 제대로 이해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점을 알지 못한다면, 의사소통에서 오해가 생길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언어가 혁명의 도구로 간주되기 때문에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맞도록 새롭게 형성된 언어표현들이 많다. 예를 들면, 남한에서는 “나는 할 수 있다”는 언어표현은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방법이 있다는 개인의 능력을

45) Miroslav Volf, *Free of Charge*. 김순현 옮김. 『베풀과 용서 -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서울: 복있는사람, 2008).

46) 미래나눔재단. <http://www.miraenanum.org/>
한반도평화연구원. <http://www.koreapeace.or.kr/>

47) 하충엽, “이질화된 두 공동체 간에 형성되는 통이 공동체,” 『교회사학』 11(2012), 163-179.

48) 하충엽, “이질화된 두 공동체 간에 형성되는 통이 공동체,” 167-169.

가리키는 표현인 반면에, 북한에서는 어떠한 장애물이 있더라도 할 수 있다는 혁명완수를 위한 불굴의 의지를 드러내는 언어표현이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서 이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도리어 새로운 일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한다.⁴⁹⁾

셋째는 남북한의 행동양식이 매우 이질적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면, 남한의 북한사역자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점을 많이 힘들어 한다. 그러나 북한은 전체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약속은 당의 요구에 복종하기 위한 약속일 뿐이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약속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기에 북한이탈주민들이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남한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면 그들을 불평하고 비난하고 그들에게 배타적이게 될 위험성이 많이 있게 된다.⁵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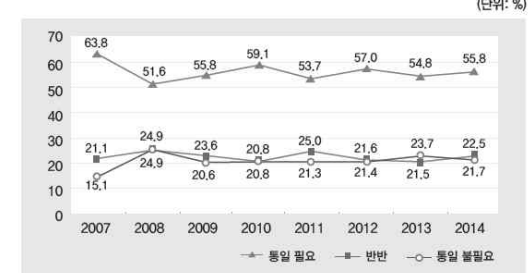
남북한의 외형인식, 언어표현, 행동양식이 이미 매우 이질화되어 있음을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하층엽 박사는 남북한 사이의 만남의 처음부터 통일을 말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강제적인 동화 및 적응을 초래하거나, 또는 강제적인 획일화를 요구하는 위험성이 있고, 그러다가 서로를 배제하고 서로에게 배타적이게 되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기에 양자의 만남 속에서의 삶 가운데서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를 알고 배우면서 새로운 민족적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제안한다. 상호 이해와 포용의 국면으로서의 통이공동체를 거쳐야 진정한 실질적인 통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역설한다.⁵¹⁾ 통이는 다름안에서의 일치를 의미하기에 다른 집단을 한 집단으로 흡수하기를 포기하고, 서로의 다름을 포용하고 존중함으로써 조화로운 보편공동체를 창조하는 것이 다라고 주장한다.⁵²⁾

셋째, 송실대학교는 대학최초로 통일관련 교양필수과목인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2014년에 개설하였다. 한 학기 동안 온라인으로 이론수업을 하고, 이와 별도로 학과별로 3박4일간 송실통일리더십연수원에서 합숙수업을 받는다. 합숙수업 1일차에는 “겨레의 통일 봄맞이,” 2일차 “차이를 넘어 남북 하나되기,” 3일차 “통일한국의 리더십 만들기,” 4일차 “통일체험하기”의 주제로 진행된다. 이와 같은 이론수업과 합숙수업을 통하여 북한 및 북한이탈주민들에 관하여 기본적인 이해를 증진시킨다. 물론 이러한 교육과정이 피상적인 교육으로 그칠 가능성은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과정의 목적과 취지를 더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서울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의 2014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⁵³⁾ 통일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 26.9%, “약간 필요하다” 28.9%로, 이 둘을 합친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은 55.8%이다. 반면에 “반반 또는 그저 그렇다” 22.5%, “별로 또는 전혀 필요 없다” 21.7%이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분단이 길어질수록 약해져 왔고, 통일의 불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대하여 왔다. 연령별로 분석하면, 지난 몇 년간 나타난 현상과 마찬가지로 젊은 세대일수록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응답률이 낮은 양상은 유지하고 있다. 가장 젊은 연령집단인 20대에서는 통일이 필요 없다는 응답이 32.6%이며,

30대에서는 25.3%, 40대에서는 18.1%, 50대 이상 14.9%이다.

〈그림 1-1-1〉 통일의 필요성



이와 같이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점점 더 증대되는 상황 속에서 송실대학교의 통일 관련 교양필수과목 수업은 통일의식을 고양시키고 북한 및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앞으로 다가올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 기여할 통일의 전문가 및 일꾼들이 배출될 것이라 기대한다.

더 나아가서, 송실대학교는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를 설립하여 기독교의 목회자 및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통일준비포럼 및 통일교육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통하여 북한 및 북한이탈주민들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귀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남한의 교회들이 교회 내에 북한선교부를 두고 북한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역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다. 주된 원인은 북한선교사역을 담당할 진정한 전문가들이 교회 내에 없다는 점이다. 그러기에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를 통하여 북한 및 북한이탈주민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배출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러면 남한의 개교회 내에서의 북한선교사역에서도 더 풍성한 결실이 있을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남한으로 온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내에서 어떻게 정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들의 가진 어려움이 다차원적이고 다면적이고 다층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남한생활 내에서의 차별, 무시, 배타에 대한 경험들로 인하여 더욱 더 다중되고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의식으로 삼았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생활 내에서 더욱 더 따스한 환영 및 환대, 사회적 포용, 경제적 배려, 문화적 상호이해를 경험할 수 있다면, 이들의 어려움들은 더 수월하게 더 넉넉하게 극복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러한 가능성을 모색하고 증진하고자 삼위일체신학에서 신학적인 비전을 가져왔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성,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방성,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호내주성의 모습들을 지니시는 분이시기에, 이것에 근거하여 삼위일체신학은 인간 존재 및 인간 사회에 대하여 관계성/공동체성 및 개방성/포용성의 원리를 이끌어내고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남한사람들과 북한이탈주민들 사이에 관계성/공동체성 및 개방성/포용

49) 하층엽, “이질화된 두 공동체 간에 형성되는 통이 공동체,” 169-172.

50) 하층엽, “이질화된 두 공동체 간에 형성되는 통이 공동체,” 172-173.

51) 하층엽, “이질화된 두 공동체 간에 형성되는 통이 공동체,” 176.

52) 하층엽, “신구이주민들 - 영락교회에서 보편적 공동체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성의 수용,” 『선교와 신학』 31(2013), 267.

53) 박명규 외 공저, 『2014 통일의식조사』(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4), 36-38.

성을 형성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을 귀감이 되는 사례들을 제시하며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는 남한 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 교회 및 한국 사회 내에서 더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이러한 노력들과 시도들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도 상당한 도움과 효과를 줄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본 연구는 무엇보다 첫째로 교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남북한 평화통일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한국 교회들과 기독교단체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스스로 지닌 신학적 유형을 성찰하고 그 유형이 지닌 나름대로의 장점들과 한계들을 성찰하도록 돕는다. 그러면서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의 역사적, 사회적, 우주적 차원들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삼위일체-중심적 유형으로 나아가길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럼으로써 한국 교회와 교인들이 남북한 평화통일의 문제를 하나님의 우주적 활동의 관점으로 이해하면서 이를 위한 다양한 사역들에 참여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일반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근대적 주체의 특징으로서의 개인주의와 이에 대립되는 집단주의로부터 벗어나서 타자를 긍정하고 이해하며 포용하여 진정한 공동체를 추구할 수 있도록 기대할 수 있다. 통일이 있게 되면, 경제적인 관점에서 막대한 비용이 들고 일자리가 더 부족해질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과 두려움으로 남북한 평화통일의 과제에 무관심하고 무시하는 자세로부터 벗어나서 나의 문제이며 우리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통일 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로 사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단일민족문화 속에서 추구하여왔던 정체성 속에 내재된 배타성을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성찰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그래서 한국 내에 존재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단순히 동정과 구제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사회를 더 풍성하고 다채롭게 발전시켜 주며, 한국인들에게 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도전과 영향을 줄 것임을 깨닫도록 돕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넷째로, 앞에서 언급한 모든 기대효과들은 앞으로 있을 통일이 더 실질적인 통일이 되도록 준비하도록 도울 수 있다. 더 나아가서, 한반도의 평화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온 세계의 평화를 확립하고 강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아무췌로 본 연구를 비롯하여 제2회 평화통일신학포럼의 여러 귀한 연구논문들과 장로회신학대학교의 남북한평화통일신학연구소의 귀한 활동들을 통하여, 은혜로우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성, 개방성, 상호내주성에 근거하여, 한반도와 아시아와 온 세계에 인간 존재 및 인간 사회에서의 관계성/공동체성 및 개방성/포용성이 넘쳐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VI. 참고문헌

- 강영안. 『주체는 죽었는가』. 서울: 문예출판사, 1996.
- 곽미숙. 『삼위일체론 전통과 실천적 삶』.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 곽해룡.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문제 - 사례와 지원 방안』.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5.
- 김영하. 『새터민을 통해 본 남북한 사회 그리고 통일』. 대구: 경북대학교출판부, 2010.
- 남북하나재단. 『2014 북한이탈주민 사회조사』. 서울: 남북하나재단, 2014.
- _____.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서울: 남북하나재단, 2014.
- _____. 『2014 탈북청소년 실태조사』. 서울: 남북하나재단, 2014.
- _____. http://www.nkrf.re.kr/nkrf/archive/archive_01/kolas/kolasList.do?kind=DAS2
- 류종훈. 『탈북 그 후, 어떤 코리안 - 남한을 떠나 해외 난민으로 살아가는 탈북자들의 삶을 취재한 다큐멘터리』. 서울: 성안북스, 2014.
- 박 만. 『최근신학연구 - 해방신학에서 생태계신학까지』. 서울: 나눔사, 2002.
- _____. 『현대 삼위일체론 연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 박명규 외 공저. 『2014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4.
- 박원빈. 『레비나스와 기독교 - 기독교 신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현대철학』. 서울: 북코리아, 2010.
- 배희숙·하경택·박성규·신옥수·안교성 공저. 『평화통일신학 - 신학적 근거의 모색 (제1회 평화통일신학포럼)』.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남북한평화통일연구소, 2015.
- 백충현. “갈병의 ‘삼위일체적 함께하심’의 원리,” 『칼빈연구』 7집(2010년 1월 20일): 111-126.
- _____. 『남북한 평화통일을 위한 삼위일체적 평화통일 신학의 모색』. 서울: 나눔사, 2012.
- _____. “레오나르도 보프의 ‘페리코레스스-연합모델’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9집(2012년 1월): 135-154.
- _____. “추양 한경직 목사의 생명신학,” 『오늘의 생명신학(제1집)』. 서울: 신앙과지성사, 2013: 252-279.
- _____. “프레데릭 데니슨 모리스에서의 삼위일체와 사회,” 『한국조직신학논총』 37집(2011년 9월): 7-37.
- 송영훈. “해외탈북이주 현상의 현황과 쟁점,” 『제주평화연구원(JPI) 정책포럼』(2012): 1-22
- 송실대학교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 『제1회 목회자 통일준비포럼 자료집』(2015년 6월 18일, 송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
- 신옥수, “몰트만의 사회적 삼위일체론 - 비판적 대화를 중심으로,” 『장신논단』 제30집 (2007년): 203-230.
- 신옥수. “통일신학의 어제와 오늘,”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1(2009): 55-83.
- 안교성. “통일신학의 발전에 관한 소고,” 『한국기독교신학논총』 90(2013): 87-113.
- 오승성. 『후기 정초주의와 기독교 신학 -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와 한스 프라이 신학의 후기 정초주의적 해석』. 서울: 고려글방, 2012.
- 유엔난민기구(UNHCR) 자료. <http://unhcr.org/556725e69.html>
- 윤인진. 『북한이주민 - 생활과 의식, 그리고 정착지원정책』. 서울: 집문당, 2010.
- 윤철호. 『삼위일체 하나님과 세계』.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2011.
- 이순영 외 엮음. 『탈북 가족의 적응과 심리적 통합』.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이영석·정유경 역음. 『국내외 탈북자를 위한 민간지원 - 어디까지 왔나, 무엇이 쟁점인가?』. 서울: 우양, 2005.

인구보건협회 보도자료. <http://www.ppfk.or.kr/>

전명희. “미국으로 간 탈북자들의 정착과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권 4호(2012): 89-111.

정병호 외 역음. 『웰컴투 코리아 - 북조선 사람들의 남한살이』.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8.

최순호. 『탈북자, 그들의 이야기』. 서울: 시공사, 2008.

통계청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통일부 알림마당 자료.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440>

하충엽. “신구이주민들 - 영락교회에서 보편적 공동체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성의 수용.” 『선교와 신학』 31(2013): 247-271.

_____. “이질화된 두 공동체 간에 형성되는 통이 공동체.” 『교회사학』 11(2012): 163-179.

_____. “통이 공동체 이해를 통해 바라보는 통일.” 『교육교회』 422(2013): 14-19.

_____. “한경직 목사의 북한선교 사역.” 『한경직목사 10주기 추모자료집』(서울: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2012): 173-200.

허호익. 『통일을 위한 기독교 신학의 모색: 남남 및 남북 갈등과 통합적 통일신학』. 서울: 동연, 2010.

Baik, Chung-Hyun. *The Holy Trinity - God for God and God for Us: Seven Positions on the Immanent-Economic Trinity Relation in Contemporary Trinitarian Theology* (Princeton Theological Monograph Series 145). Eugene: Pickwick Publications, 2011. 백충현 옮김.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 - 현대 삼위일체신학에 대한 신학·철학 융합적 분석: 존재론과 인식론을 중심으로』.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Boff, Leonardo. *Holy Trinity, Perfect Community*. 김영선·김옥주 옮김. 『성삼위일체 공동체』. 서울: 크리스천헤럴드, 2011.

_____. *Trinity and Society*. 이세형 옮김. 『삼위일체와 사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Buber, Martin. *I and Thou*. 김천배 옮김. 『나와 너』(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LaCugna, Catherine Mowry. *God for Us: The Trinity and Christian Life*. 이세형 옮김. 『우리를 위한 하나님: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인의 삶』.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Levinas, Emmanuel. *Otherwise than Being or Beyond Essence*, trans. Alphonso Lingis, Bost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78.

Maurice, Frederick Denison, *Theological Essays*, London: Macmillan, 1871.

Migliore, Daniel L. *Faith Seeking Understanding: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Theology(2nd edition)*. 신옥수·백충현 옮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 기독교 조직신학 개론(전면개정판)』.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2.

Moltmann, Jürgen. *The Trinity and the Kingdom: the Doctrine of God*. 김균진 옮김.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나라』.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2.

Miyahira, Nozomu. *Towards a Theology of the Concord of God: A Japanese Perspective on the Trinity*, Carlisle: Paternoster Press, 2000.

Peters, Ted, ed. *God as Trinity: Relationality and Temporality in Divine Life*. 이세형 옮김. 『삼위일체 하나님 - 신적 삶 안에 있는 관계성과 시간성』. 서울: 컨콜디아사, 2007.

Volf, Miroslav. *After Our Likeness: The Church as the Image of the Trinity*. 황은영 옮김. 『삼위일체와 교회 -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교회에 대한 가톨릭·동방정교회·개

신교적 이해를 찾아서』.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2.

_____. *Free of Charge*. 김순현 옮김. 『배푼과 용서 -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 서울: 복있는사람, 2008.

_____. *Exclusion and Embrace: A Theological Exploration of Identity, Otherness, and Reconciliation*. 박세혁 옮김. 『배제와 포용』.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IVP), 2012.

Zizioulas, John D. *Being as Communion*. 이세형·정애성 옮김. 『친교로서의 존재』. 춘천: 삼원서원, 2012.